

법제처,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교류 및 협력 방안 논의

-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학장, 법제처 방문

법제처(처장 조원철)는 2월 20일,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 솜데트 깨오봉삭(Somdeth Keovongsack) 학장이 법제처와의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제처를 방문했다고 밝혔다.

이번 방문은 대한민국과 라오스 간 법제 분야의 교류·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. 라오스 국립대학교는 라오스의 유일한 국립대학교로, 특히 법정대학은 법률 전문가와 고위 공직자를 다수 배출해 온 핵심 교육기관이다.

법제처와 라오스는 2012년 라오스 법무부 차관의 방한을 계기로 법제 교류를 시작했고, 2016년에는 라오스 법무부와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져 왔다. 이번 방문에서는 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 법제 지식 교환, 인적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논의하는 성과가 있었다.

조원철 법제처장은 “대한민국과 라오스는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”라며, “라오스 국립대학교 법정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의 법제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, 꾸준히 이어지는 협력 관계로 만들어 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실	책임자	과 장	서홍석	(044-200-6825)
	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	담당자	주무관	백선주	(044-200-6824)